

VIP 고객용

07-04(통권 0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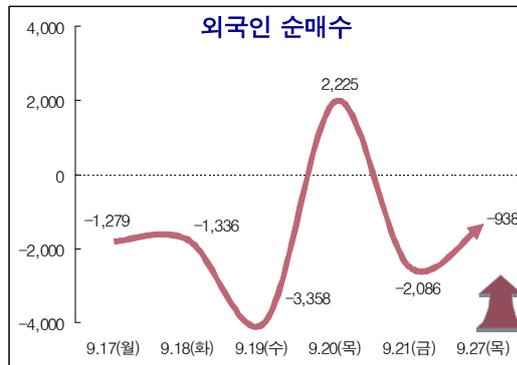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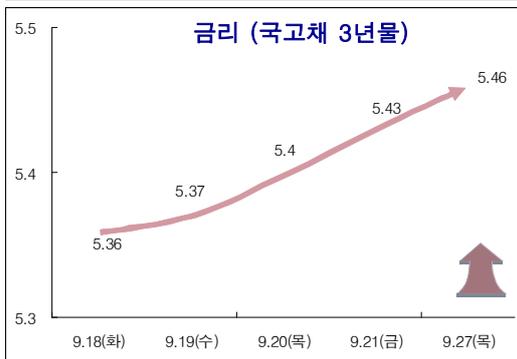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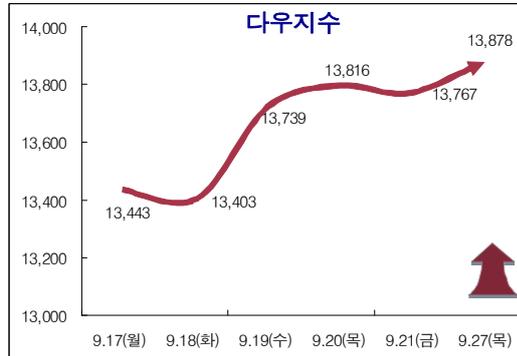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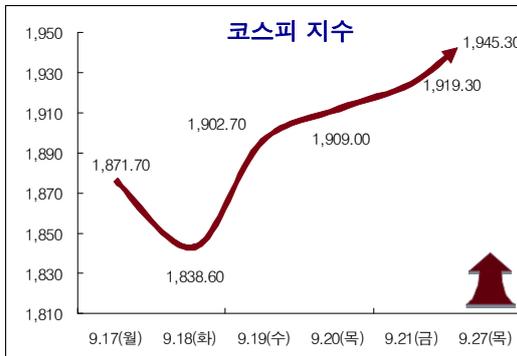
2007.10.01.

금융빅뱅 인사이트



- 자본 시장 분석
 - 증시 Focus: 교역증대가 글로벌경제 고성장을 견인
- 금융 빅뱅 이슈
 -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

月間 主要 經濟 指標 (9.17 ~ 9.27)



Better than the Best!

목차

자본 시장 분석

□ 증시 Focus: 교역증대가 글로벌경제 고성장을 견인 1

금융 빅뱅 이슈

□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 6

□ 본 자료는 주요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 금융 빅뱅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증권사와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대 증 권 : 한 동 옥 연구위원 (2014-1708, tuksan..han@hrcviews.com)

□ 현대경제연구원 :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Executive Summary

□ 증시 Focus: 교역증대가 글로벌경제 고성장을 견인

이머징마켓과 자원보유국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을 둔 고정투자지출 증가와 글로벌 교역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경제 고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 수혜 폭이 커져 가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글로벌경제 전반의 교역증대가 부가가치창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간의 역할분담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글로벌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자원보유국의 구매력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시장확대의 기회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미국경제 둔화세가 연착륙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과 주택시장 침체 지속에 기인해 고용시장과 소비동향과 관련된 경제지표의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경제 역시 글로벌경제 호황세의 덕택으로 기업이익과 가계의 순자산규모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감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금리인하와 건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원책들이 제공될 경우 주택시장을 제외한 비주거용 및 공공부문의 건설지출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및 기업들의 자본지출 감소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제한적인 둔화와 글로벌경제의 고성장지속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성장가도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시장은 에너지, 소재, 산업재 업종이 주도하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

1. 금산분리 논의 재가열

최근 금융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62.9%에 달하고 있고 국내 7대 시중은행 중 국내 민간 자본 소유 은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9월 3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대상자로 HSBC 은행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부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산분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향후 금산분리 논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및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향방이 정해지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금산분리 논의 쟁점을 점검하고 생산적인 금산분리 정책의 방향을 제기해 보기로 한다.

2. 금산 분리 논의의 쟁점

금산분리 정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순환 출자와 같은 폐해 방지 문제로서 소위 은행의 사금 고화에 대한 우려이다. 금산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운용 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은행 경영에 참여한 산업자본에 모든 기업 정보가 집중될 경우 정보 우위를 통해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측은 산업자본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독립성과 건전성이 외환위기 이후 제고된 것을 고려하면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 강화로 옮기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한다.

둘째 규제의 역차별적 문제이다. 금산분리 지지자는 산업자본이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 은행을 해외에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금산분리법의 폐지는 오히려 외국 금융자본을 넘어 산업자본에게도 동시에 열려질 수 있어 외국 자본의 진출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가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반대 측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은행이나 큰 기업이 매각될 때 금산분리원칙에 묶여 우리 기업이 인수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은행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국내 기업의 정보가 밖으로 썰지 모르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셋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문제이다. 금산분리 지지자는 산업자본인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경고한다. 금산분리 반대 측은 국내 기업들의 낮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본다. 산업화 초기의 경제에서는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 여부가 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시장 대응 문제이다. 금산분리 찬성측은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대비한 규제 완화보다는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상승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에 반해 반대측은 대기업 주식은 외국자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적대적 M&A 시장의 발달에 따라 국내기업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다섯째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외국자본, 대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자본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반면 금산분리 반대 측은 과거처럼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앞으로 금융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과 같은 고수익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기업 대출이 은행 수익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융기관은 기업의 정보들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은행산업은 중립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에 있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산분리 반대자는 인터넷 뱅킹 등 정보산업의 발전에 의해 제조업 또는 유통업에서 은행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졌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업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선진국 사례와 개선 방향

이처럼 금산분리 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유지되고 있다. 요약하면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산결업은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 입장은 국내 금융자본의 부채, 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금산분리 논의는 위와 같이 소모적인 데서 벗어나 보다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유연한 금산분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향후 금산분리 논의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우선 OECD국가의 금산분리 현황을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각자의 나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 등 금융자본의 산업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 외에도 영국 등 전면 허용하는 나라와 일본 등 사전승인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나라들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금산분리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금지된 미국에서조차도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산업융자회사(ILC)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허용되었다.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인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기업인 GMAC 은행은 산업융자회사의 일종으로 자동차의 파이낸스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카드, 보험, 은행 업무에도 진출하였다. 이외에도 GE, Target(유통업), Nordstrom(백화점), Toyota, BMW, Volkswagen과 같은 소매업, 유통업 등의 많은 기업이 산업융자회사를 활용함으로써 2000년 전후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금산분리를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승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기업계 은행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했다. 세계 대전 이후에도 메인뱅크 형태로 대기업과 계열 관계를 맺어 오면서 대기업 계열은행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IT 발전에 따라 은행업 진출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기반인 Sony 은행, 유통업 기반인 세븐뱅크 등의 신규 은행까지 등장하였다. 이처럼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2002년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를 다소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2년에 강화된 은행 소유 규제 또한 20% 초과 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5% 초과 시 신고) 산업자본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의 고객기반을 토대로 제조업 및 유통업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1982년 이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금산분리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그룹 기업에 대한 융자 제한, 거액의 신용 대출 규제 등 필요한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증시 Focus: 교역증대가 글로벌경제 고성장을 견인

- 글로벌경제 전체로 보아 교역증대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교역증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글로벌경제 전체 입장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기준 강화가 가져올 가계대출자 및 기업들의 자본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쇄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이유는, 지난 2003년 이래 글로벌경제 확장세는 단기적인 재고순환사이클을 넘어서 근대자본주의 역사상 도약의 시기에 나타난 공통적인 3가지 원동력에 의해 장기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교역증대를 위한 국제적 공조,
 -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혁신적 기업가와 금융가의 출현,
 - 이동수단 및 통신수단의 발달이 3가지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최근에는 혁신적 금융가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가 이에 대한 시장규칙이 재정립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나머지 원동력은 견재하고 글로벌경제의 고성장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원동력들이 글로벌경제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
 - 2002년~2007년 9월까지 글로벌 건화물운임지수(BDI)는 4.3배, 글로벌 상품가격(로이터 CRB지수)은 1.5배 상승하였음
 - 이러한 상승률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교역증대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임

- 즉, 이동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글로벌경제의 단일화정도가 심화되고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정의 증가 등 교역을 장려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하여 실제 운송하는 내용물보다 운송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글로벌 건화물운임지수(BDI); 5년이래 4.3배 상승



자료: Bloomberg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5년이래 1.5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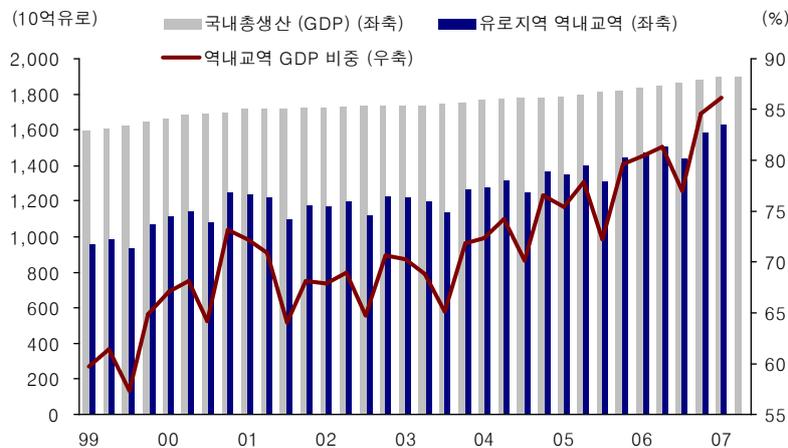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유로경제 고성장의 가장 큰 기여는 역내 교역증대

- 2007년 1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에 있어 유로지역이 미국을 앞지른 몇 가지 이유들 중에서 ‘EU’ 라는 단일경제체제의 효과가 역내 교역증대로 나타나면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난 9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설립에 초석이 되었던 로마조약 50주년을 기념해 OECD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음
- 경제규모와 교역량에 있어서 글로벌 최대규모를 달성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유럽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었음. 주된 요지는,
 - 더욱 더 교역장벽을 낮추고,
 - 전기, 가스, 운송 등 유럽의 네트워크산업을 서로 개방하고,
 -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벽제거 등을 차기 과제로 제시하고 단일경제권의 혜택을 늘려가고자 하는 취지였음

유로지역의 GDP와 역내교역규모 비교;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교역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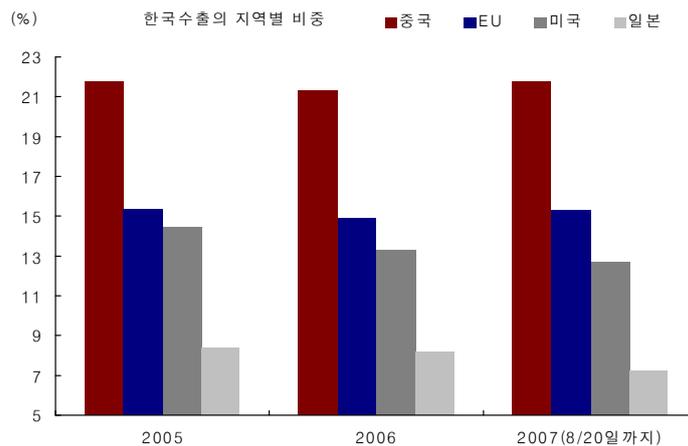
자료: CEIC

○ 차이나프리미엄을 강화시키는 아시아 교역증대

- 지역경제의 단일화가 교역증대를 가져오는 현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에서도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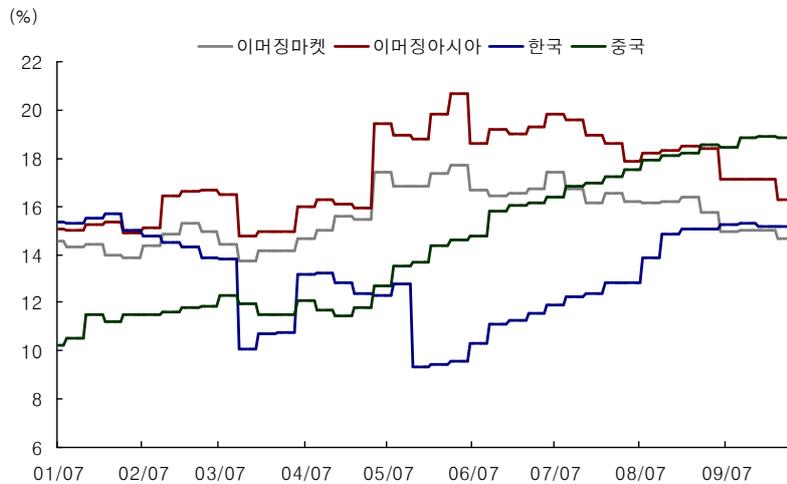
-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수출동향에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크고 지속적임
- 지난 9월 25일, Fed에서 발표한 ‘아시아경제 성장엔진으로서 중국 역할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 교역비중이 1990년 41%에서 2005년 52%로 크게 증가하였고 중심적인 역할은 중국이 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아시아국가들(NIEs + ASEAN)의 경제성장률과 미국과 중국의 그것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중국과의 상관성이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음
 -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부품 및 원자재, 중국은 최종재를 생산하고 일부 겹치는 품목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선별해가며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바람직한 교역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즉, 아시아지역에서도 거대경제인 중국이 축이 되면서 교역증대가 지속되고, 이는 이머징아시아의 견조한 경제성장세로 이어지며 차이나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주식시장의 이익전망치에서도 확인됨
- 한국의 이익전망치는 여타 이머징마켓과 다르게 중국의 이익전망치와 동조화를 이루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 수출의 지역별 비중; 중국이 두 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견인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 중국, 이머징마켓의 이익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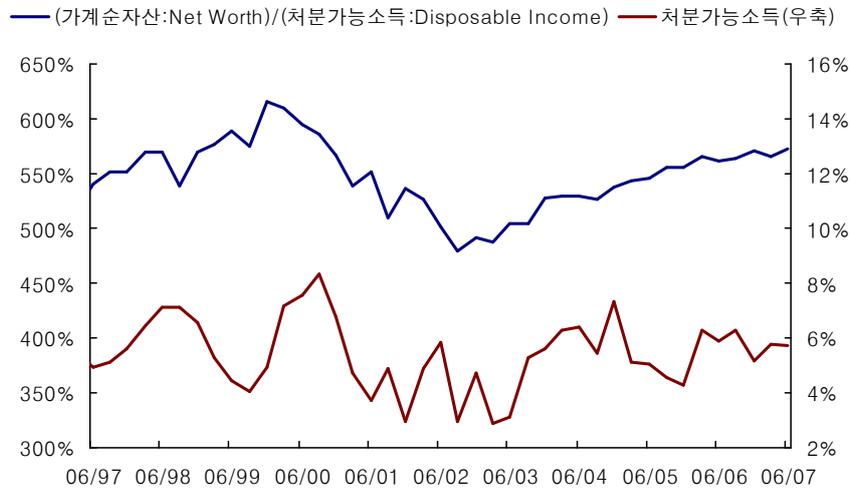


참고: 향후 12개월 EPS전망치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Thomson IBES

○ 미국경제 연착륙기조 유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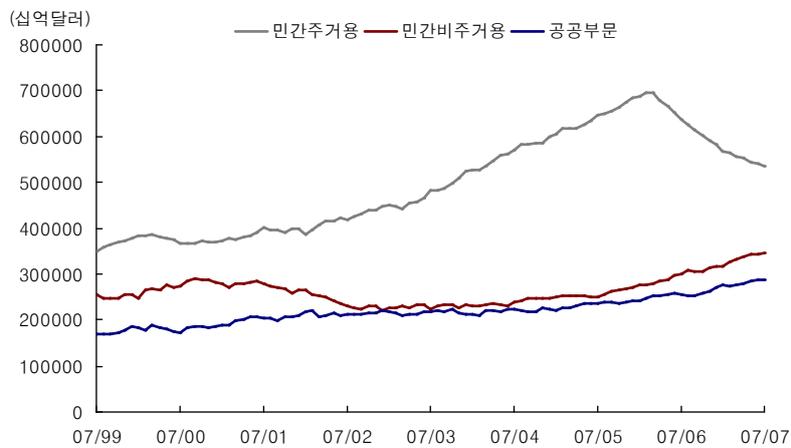
- 지난 9월 18일, 50bps 금리인하로 시작된 미국 정책당국의 연착륙 노력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고용동향 및 소비동향은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과 서브프라임사태의 후유증으로 추가적인 악화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정책당국의 구제책에 힘입어 그 정도는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 그 이유는, 미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과 순자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미치는 주택시장 침체의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건설지출분야에서 주택시장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비주거용 부문의 건설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임
- 즉, 미국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 고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경제 전체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보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와 재정당국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 힘입어 연착륙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순자산(Net Worth)



자료: Bloomberg

미국 부분별 건설지출 동향; 주거용 감소세와 비주거용 및 공공부문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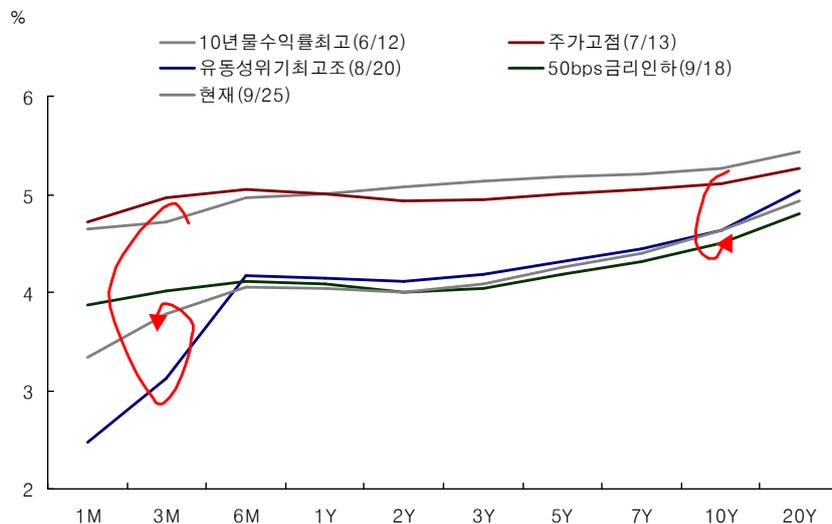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추가 금리인하와 연착륙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채 수익률곡선

-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4.0%가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 6월 12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26%를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의 수익률곡선 형태의 변화로 판단하건대, 미국 경제는 추가 금리인하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7/13일, 수익률곡선은 다소 평평해지다가 신용경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8월 중순에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단기유동성 선호현상이 나타나며 단기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음
- 그 이후 50bps라는 큰 폭의 금리인하가 단행되었던 9월 중순에 신용경색이 완화되며 단기물 선호현상이 줄어들고, 9월말 들어서는 장기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단기채권수익률이 하락하며 수익률곡선의 형태는 우상향으로 가팔라지고 있음
- 경험적으로 우상향형태의 수익률곡선 모습은 경제회복을 암시하며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은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추가 금리인하기대와 경제 연착륙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채 수익률곡선



참고: 1) 미국채시장의 만기별 수익률곡선은 경험적으로 우상향일 때 경기회복 및 확장, 평평해질 때 경제사이클이 정체상태, 우하향으로 바뀔 때 경제는 둔화 또는 침체국면으로 진입을 나타냄

2) 또한, 그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는 방향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

자료: Bloomberg

○ 주식시장전망; 에너지, 소재, 산업재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 지속 예상

- 교역증대가 가져오는 글로벌경제의 성장모멘텀 지속과 Fed의 적극적인 대처로 미국 부동산시장 침체의 실물경제 성장 둔화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이미 업종별 동향에 있어 글로벌 인프라투자 관련 업종과 미국소비관련업종의 뚜렷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펀더멘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한동욱 연구위원 (2014-1708, tuksan.han@hrcviews.com)

최근 금산분리 논의 쟁점 및 시사점

1. 금산분리 논의 재가열

- 국내 민간 자본 소유 은행이 전무한 가운데 외환은행의 HSBC은행 매각과 관련, 국부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분리 논쟁이 가열
 - 국내 7개 시중은행 중 6개(국민, 신한, 하나, SC제일, 외환, 씨티)가 외국인 소유이고 1개(우리은행)는 정부 소유임
 - 국내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2.9%에 달하고 있음
 - 지난 3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대상으로 HSBC은행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부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분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국내 시장은 현재 현금을 과다보유한 산업자본과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팔리는 금융사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임
 - 향후 금산분리 논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실현, 우리은행 민영화 향방 등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주요 은행 외국인 지분 현황

구분	외국인보유비율(%)	주요 주주
국민은행	84.49	Bank of NY(15.21)
하나금융지주	79.56	Goldman Sachs(9.34)
외환은행	73.33	LSK KEB Holdings, SCA(50.53)
대구은행	66.60	SMall CAP World Fund(7.87)
신한지주	63.46	BNP Paribas(7.76)
부산은행	62.46	롯데(14.11)
우리금융지주	10.35	예금보험공사
평균	62.89	-

자료 : 금융연구원(2007),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2. 금산 분리 논의의 쟁점

- 금산분리에서 논의되는 쟁점은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규제 역차별적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대응,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이해, 규제의 실효성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순환 출자와 같은 폐해 방지 문제(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 (금산분리 유지) 금융회사의 운용 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산업이 금융과 가까워지면 불공정 소지가 있음
 - 금산분리 원칙이 폐기되면 은행 경영에 참여한 산업자본에 모든 기업 정보가 집중됨으로써 정보의 우위를 통해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세계 100대 금융기관 중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은 네 개에 불과함¹⁾
 - (금산분리 폐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음²⁾
 - 최근 금융산업의 독립성과 건전성은 금융감독장치,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시장 기능이 제고됨³⁾
 - 외부통제기능 강화 방법으로는 금융시장 경쟁촉진, 소액주주권 보호, 적대적 M&A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가 육성 등이 있음⁴⁾
 - 산업자본이 지방은행의 지분 15%까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산분리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경제개혁연대(2007), '금산분리특집호(1)', 경제개혁리포트.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2006),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3) 대한상의(2007), '금산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2006)

○ 둘째 규제의 역차별적 문제

- (금산분리 유지) 산업자본이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 은행을 해외에서 인수하는 것은 아님
 - 국민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농협 등이 시중은행 인수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현행 금산분리법에 의해 해외자본은 외국의 금융자본에 한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산분리법이 폐지될 경우, 외국의 산업자본에게도 길이 열려질 경우, 외국자본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산분리 폐지) 금산분리는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면서 대부분 은행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⁵⁾
 - 지난 97년 외환위기에 IMF 자금지원을 받을 때 국내 은행 한두 곳을 반드시 외국자본에 팔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이 그 출발점
 -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은행이나 큰 기업이 매각될 때 금산분리원칙에 묶여 우리 기업이 인수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한다는 점이 ‘역차별’ 주장의 근거임
 - 은행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우리의 주요 정보가 얼마나 해외로 유출될지 모르고 금융정책 구사에 있어 쉽지가 않을 것임
 - 금산분리의 허점을 노리고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됨

○ 셋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 (금산분리 유지)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대기업이 은행을 경영하다 부실해지면 경제에 은행발 공황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함

5)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는 국적에 관계 없이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국내외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 (금산분리 폐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부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주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 하락 및 현금성 자산 증대에 따라 기업의 건전성이 증가됨으로 금산분리의 완화 필요성 제기⁶⁾
 - 산업화 초기의 경제에서는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 여부가 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기업의 확장 능력을 좌우하지 않음

○ 넷째 국내 적대적 M&A 시장 대응 문제

- (금산분리 유지)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대비한 규제완화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상승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 (금산분리 폐지) 대기업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M&A 시장의 발달에 따라 국내기업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⁷⁾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 차원에서 은행과 기업 간의 상호주식 보유가 활발함
 - 대한상공회의소(2008)는 적대적 M&A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다섯째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문제

- (금산분리 유지)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보다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 외국자본, 대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음

6) 대한상의(2007)

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2006)

- (금산분리 폐지) 과거처럼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됨⁸⁾
 - 기업 자본부족의 시대는 잉여자금의 시대로 바뀌었고 은행이 기업을 지원해주는 독일-일본식에서 이젠 금융 자체가 고수익 산업이자 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는 영-미식 패러다임으로 전환
 -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 M&A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 및 산업 자본의 공조를 허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⁹⁾

○ 여섯째 규제의 실효성 문제

- (금산분리 유지) 은행은 기업의 정보들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은행산업은 중립적이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에 있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함
- (금산분리 폐지) 정보기술의 진전 등에 따라 은행업 등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됨
 - 인터넷 발달에 따른 제조업 또는 유통업에서 은행업으로의 진출이 증가
 - 영국에서는 인터넷 बैं킹을 중심으로 한 은행업을 유통산업(세인스베리, 테스코 등)에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GE는 비은행 금융기관인 GE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GM의 경우 GM파이낸스를 운영
 - 일본의 경우, 세븐뱅크(유통업 기반), 소니뱅크(제조업 기반) 등 인터넷 बैं킹을 전업으로 하는 은행에 산업자본 진출이 2000년 이후 증가(<참고> 첨부)

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2006)

9) 대한상의(2007)

금산 분리 논의 쟁점

논거	유지	폐지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운용 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음
규제의 역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자본이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 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은 아님 - 금산분리법 폐지는 외국의 산업자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진입 기회가 넓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면서 대부분 은행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까지 초래함
금융시스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부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 저조
국내 적대적 M&A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의 적대적 M&A 이슈는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상승이 우선적으로 실현화될 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적 M&A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보다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처럼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됨
규제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하는 산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규제는 반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발달에 따른 제조업 또는 유통업에서 은행업으로의 진출이 증가

3. 선진국 사례와 개선 방향

○ 금산분리 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유지되고 있음

- 금산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할 경우 대기업의 자금고화 우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
 - 대기업이 은행을 경영하다 부실해지면 은행발 공황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
 - 금산분리 원칙이 폐지되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
 - 또한 금융기관을 인수한 대기업이 부실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시중자금 배분의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반해서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은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 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 규제 of 실효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금산분리는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면서 대부분 은행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까지 초래했음을 주장
 - M&A 시장의 발달에 따라 대기업 주식은 외국 금융자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인터넷 banking 등 IT 산업 발전에 의해 제조업 또는 유통업에서 은행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지게 되어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함
 - 또한 과잉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향후 금산분리 논의는 위와 같이 소모적인 데서 벗어나 보다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유연한 금산분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향후 금산분리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것이 고려돼야 함

- 우선 OECD 국가의 금산분리 현황을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각자의 나라 상황에 따라 다양함
 -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그룹은 영국 등 유럽 국가 14개국임¹⁰⁾
 - 이에 반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허용을 금지하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호주 등임
 - 일본 등은 산업자본이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사전승인부 그룹으로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금산분리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함
-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금지된 미국에서조차도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주목해야 함
 - 미국은 산업융자회사(ILC, Industrial Loan Corporations)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는 것을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허용함
 - 자동차회사인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 기업인 GMAC 은행은 산업융자회사의 일종으로 자동차의 파이낸스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카드, 보험, 은행업무에도 진출하여 GM 수익에 상당한 기여
 - 이외에도 GE, Target(유통업), Toyota, BMW, Volkswagen과 같은 소매업, 유통업 등의 기업은 영업점포망을 활용하기 위해 은행업에 2000년 전후로 진출
- 한편 일본의 경우는 금산분리를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승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기업계 은행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
 - 세계대전 이후에는 메인뱅크 형태로 대기업과 계열 관계를 맺어 오면서 대기업계열 은행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지대한 공헌을 함

10) 대한상의(2007)

- 2000년 이후에는 IT 발전에 따라 은행업 진출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기반인 Sony банк, 유통업 기반인 세븐뱅크 등의 신규 은행까지 등장
 - 물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2002년 은행법을 개정함
 - 하지만 2002년 4월 개정된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를 5%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20% 초과 보유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주주로서 산업자본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¹¹⁾
 - 향후 편의점과 슈퍼마켓, 자동차 딜러 등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한 은행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임

○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1982년 이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금산분리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금산분리 제도는 각국에 맞게 다양할 뿐 아니라 미국처럼 금산분리 내에서도 실질적인 금산공조가 진행되기도 함
 - 또한 전통적으로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최근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하자 소유규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연하게 금산분리 정책을 운영
- 또한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의 고객기반을 토대로 제조업 및 유통업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과 수요가 증가함
- 다만 금산 분리를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그룹 기업에 대한 용자 제한, 거액의 신용 대출 규제, 산업자본의 리스크 차단 조치 등 필요한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할 것임
 -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그룹 기업에 대한 용자 제한 등이 필요함
 - 사후적 규제 강화로는 거액의 신용 대출, 산업자본의 리스크 차단 조치 등의 규제가 필요함

현석원 연구위원 (kyotohyun@hri.co.kr, 02-3669-4024)

11) 국내의 경우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

< 참고 > 일본과 미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 사례

○ 일본의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 사례

- 세븐뱅크(舊 아이와이 뱅크)¹²⁾

- 세븐뱅크 주식의 50%가 산업자본인 (주)이토요카도와 (주)세븐일레븐이 세븐뱅크 지분에 의해 소유되어 있음
- 은행의 중심업무인 예금, 대출, 외환, 결제 가운데 결제업무만을 담당하는 결제전문으로 2001년 5월 설립됨
- 세븐뱅크는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이토요카도 매장(한국의 E-mart같은 매장)과 Seven Eleven 24시간 편의점 점포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24시간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당 은행의 예금자 및 제휴 금융기관의 예금자도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 2001년과 2002년 회계년도에 각각 121억 엔과 81억 엔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03년 회계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기 시작하여 2005회계연도에는 105억엔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 SONY 뱅크

- 일본의 소니는 사쿠라 은행 등과의 제휴에 따라 인터넷 전업은행인 소니 은행을 운영¹³⁾
- 인터넷 뱅킹을 전업으로 하는 은행으로서 소니에 의해 설립되어 2001년 6월에 영업 개시
- 소니 은행은 결제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금융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갖고 있으며 주택 론 대출도 증가 추세에 있음
- Full Banking 형태의 인터넷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이외에도 투자신탁 및 주택론을 취급

12)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5년 10월 상호를 IY(Ito Yokado)은행에서 세븐(Seven) Bank로 계명

13) 현재 소니파이낸셜홀딩스는 소니 생명보험, 소니 손해보험, 소니 은행을 산하에 갖고 있

- E 뱅크

-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가 모회사로 2001년 7월에 영업을 개시
- 전자 인터넷 결제를 업무의 중핵으로 한 은행으로 대출 업무가 없는 것이 종래의 은행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0만엔까지 소액 결제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좌 입력 대신 메일주소 입력으로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이온 뱅크

- 대형 슈퍼인 이온이 2007년 10월 은행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용객과 대면하여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정
- 전국 약 4,500개의 대형슈퍼를 기반으로 하는 충실한 고객층, 약 1,370만 명의 카드고객수, 이온신용서비스를 기초로 금융 사업의 기반 전개가 가능할 것임
- 쇼핑센터에 은행 설치가 가능해 기존 은행에 비해 영업시간이 길고 휴일 영업 등으로 차별화

일본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사례

주요 산업자본	진출 형태	주요 업무 내용	설립년도
이온 뱅크	대형슈퍼내 은행 지점을 설치	풀서비스 제공	2007년 예정
세븐 뱅크	은행과의 제휴에 의한 ATM의 편의점 설치	자금결제 중심	2001년
소니 뱅크	사쿠라이은행 등과의 제휴에 의한 인터넷 전용은행	예금, 대출, 자금결제	2001년
E 뱅크	10만엔 이하의 소액 결제 위주	전자 인터넷 결제	2001년

자료 : 일본 농림중금총합연구소(2000)을 기초로 재구성

는 금융지주회사로 동경거래소 상장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음.

○ 미국의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 사례

- GMAC 은행

- GMAC 은행은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을 자랑하는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기업으로 자동차의 론과 리스판매를 자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파이낸스를 일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임
- 현재 GMAC은행에서는 자동차론, 리스 제공 외에 카드, 보험, 은행업무에도 진출하고 있음
- GMAC은행은 2006년말 199억 달러로 산업자본에 의한 산업금융회사 중 가장 큰 규모임

- VW 은행

- 독일의 유명 자동차메이커인 폭스바겐 또한 미국내 은행업무를 실행하고 있음
- 자동차의 할부 및 리스 판매를 자사가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은행으로 정기예금, CD, 보통예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동차의 판매와 은행예금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상승효과를 얻고 있음

미국 산업자본에 의한 산업금융회사

단위 : 백만 달러

기관명	자산	설립년	모회사
GMAC Bank	19,937	2004	Cerberus/GMAC
BMW Bank of North America	2,220	1999	BMW Group
GE Capital Financial Inc.	1,992	1993	GE(General Electric)
Volkswagen Bank	702	2002	Volkswagen of America
Toyota Financial Savings Bank	44	2004	Toyota

자료 : Bank of Tokyo-Mitsubishi UFJ(2007)에서 재인용.

주 : Toyota Financial Savings Bank와 Volkswagen Bank는 2005년 9월말 기준이고 이의는 2006년말 기준임.

 **현대증권**  **現代經濟研究院**

금융빅뱅 인사이트 | 07-4(통권4호)